

2015

연구보고서-4

I S S U E P A P E R

맞벌이 가구의 영아양육을 위한 조부모 양육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과제명 • 맞벌이 가구의 영아양육을 위한 조부모 양육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유희정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 ● 맞벌이 가구의 영아양육을 위한 조부모 양육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과제명  맞벌이 가구의 영아양육을 위한 조부모 양육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유희정 선임연구위원

☎ Tel: 02-3156-7224

✉ e-mail: hjungyoo@kwidimail.re.kr

I 요약

우리나라에서 조부모 육아지원은 맞벌이가구 증가와 더불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기관이 오후 4시를 전후하여 퇴원하는 형태여서 맞벌이가구 혹은 모가 취업중인 가구는 오후 4시 이후부터 부모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오후 8-9시경까지 조부모가 유아들을 돌보아주는 형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조부모 육아는 주로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아의 조부모(및 기타 친인척) 도움 비율은 2004년도 23.6%에서 2009년도 26.1%, 2012년도 37.8%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특히 취업모 가정은 조부모(및 기타 친인척) 지원이 53.0%에 달한다.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유희정·이슬·홍지수(2015). 맞벌이 가구의 영아양육을 위한 조부모 양육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의 증가는 사회변화 현상에 기인한다. 맞벌이가구 혹은 취업모의 증가는 자녀양육이 여성의 책임인 상황에서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더욱이 한 국가가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적절한 육아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조부모 손자녀 육아 참여 정도와 직결된다.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이어서 낮 동안 어린 자녀를 돌보아줄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국가가 잘 지원해주지 못하면 취업모들은 개별적으로 별도의 육아지원 방법을 찾거나 직장을 포기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확대되어 온 방안이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이다.

우리나라의 조부모 손자녀 육아支원은 확대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온 대안 몇 가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취업환경은 종일제 형태이며 나아가 야근문화가 만연해 있다. 따라서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혹은 취업여성이라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육아지원정책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은 취업여성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지원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하여 자녀양육을 조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맞벌이가구 혹은 취업여성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녀양육, 특히 영아 양육 지원에 대하여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을 정책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조부모들의 손자녀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양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토대로 삼아, 맞벌이 가구의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과 관련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양육 지원의 한 대안으로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활성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500명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녀 돌봄을 조부모에게 맡기고 있는 아이부모에 대한 조사는 전체 조사 대상 500가구 중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이부모 100표본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500표본 중 100표본과 쌍표본(Pair Sample)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 19명과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는 아이부모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나. 조사결과

1) 손자녀 돌봄 현황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실태조사 결과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을 맡게 된 주요한 동기는 자녀의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 동기(67%) 및 영유아 양육을 믿고 맡길만한 곳이 없어서라는 동기(42.8%)가 주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부모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부모님께 맡기는 것이 안심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큰 동기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퇴근시간까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19.5%,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에 너무 어려서가 11.4%, 주위에 믿고 맡길 만한 영유아 돌봄시설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11.5%, 부모님이 직접 돌보길 원해서가 10.3%로 나타나 아이부모의 경우

사회적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대한 불안감 및 퇴근 이후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줄 적합한 기관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조부모에게 자녀돌봄을 맡기게 된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조부모에게 손자녀를 어디에서 돌보는지 돌보는 장소를 조사한 결과 손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돌본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며 돌봄이 27.0%, 아이부모 집으로 가서 돌봄이 26.8%, 아이부모 집에서 함께 살며 돌봄이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조부모의 69.0%는 현재 돌보고 있는 손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육아지원기관을 다니고 있다고 답하였다. 손자녀 연령별로 보면 손자녀가 1세 미만인 경우 육아지원기관을 다니고 있다는 응답은 4.3%였다. 그러나 손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육아지원기관에 다닌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세부터 5세 미만 손자녀는 94.5%, 5세부터 7세 미만 손자녀는 100.0%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경우 상당수 육아지원기관에 보내지 않고 조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으며, 영아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내용으로는 조사대상자의 99.2%가 아이의 음식이나 간식을 먹이기, 낮잠을 재우고 대소변을 봐 주고 정리하기, 옷 입히기, 씻기기 등의 일상돌보기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51.4%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데려가고 데려오는 역할을 한다고 답했으며, 79.6%는 아이의 예방접종 등을 위해 병원에 데려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1.2%는 집에 오는 육아도우미를 관리하는 역할, 89.6%는 함께 놀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들에게 아이부모로부터 손자녀 돌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받는다 73.0%, 가끔 받는다 14.0%, 받지 않는다 13.0%의 응답율을 보여,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받고 있다고 답한 조부모가 실제 받고 있는 월 사례비를 살펴보면 월 평균 61.1만원이었다. 아이부모가

조부모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기적 사례비 또한 유사하게 월 평균 59.6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돌봄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점들 중 조부모들이 가장 공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이 66.0%, 손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어 생활의 즐거움이 늘었다는 응답이 65.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 간 대화가 늘고 가족이 자주 만나 화목해졌다는 응답이 32.4%, 손자녀 돌봄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게 생각되어 노후 생활에 활력이 된다는 응답 16.2%, 나의 인생경험으로 손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좋다는 응답 12.2%를 보이며 노후 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7.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답하고 있으며(59.4%), 다음으로는 아이 돌봄으로 인해 교우관계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점인 것(41.0%)으로 나타났다.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응답과 살림까지 같이 하기 벅차다는 응답은 각각 32.0%, 30.8%이었다.

손자녀 돌봄을 지속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조사대상 조부모 응답자의 73.8%는 만약 이제 손자녀를 그만 돌봐도 된다면 그만 두겠다고 답하였으며, 26.2%는 더 이상 돌볼 필요가 없더라도 계속 돌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답했다.

2)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정책화 가능성

조부모에게 자신의 손자녀를 조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정부에서 활성화하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전체의 61.6%가 찬성, 3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아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62.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이 부모가 편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어서(45.1%), 노인들의 역할이 생겨서 활력소가 되므로(25.6%),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22.4%), 노인들의 가게에 도움이 되므로(17.2%), 아이 부모의 가게에 도움이 되므로(16.2%), 가족 간의 대화가 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6.2%)의 순이었다. 반대 이유는 68.2%의 응답자가 노인들의 건강에 무리가 되는 일이라서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53.6%의 조부모는 노인들의 시간을 뺏는 일이라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이부모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86.9%가 찬성하여, 조부모에 비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정책 활성화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양육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부모의 44.0%는 육아휴직제나 탄력근무제, 정시퇴근문화 조성 등 아이부모가 직접 자신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35.6%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보미 파견 등 공공육아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의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20.0%이다. 아이부모 또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8.0%가 아이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32.0%는 공공육아서비스 확충 방향, 19.0%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하여, 조부모의 응답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현재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를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고 싶은 도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조부모의 가장 큰 지원요구는 일정시간 돌봐주는 보육기관 또는 돌봄기관을 확대하는 것(49.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손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및 휴식 공간 제공 요구가 39.8%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전지원 요구가 35.0%, 돌봄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요구 34.2%, 조부모 건강지원 프로그램 요구는 20.4%로 나타났다. 그 외 보조인력 지원 요구가 10.0%,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요구는 2.2%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3 정책제언

제안 1) 조부모 육아지원 대상

조부모의 손자녀 육아 지원은 현재 영아돌봄, 유아돌봄 중 영아돌봄에 집중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아 육아지원을 대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안 2) 조부모 육아지원에 대한 비용 지원

0-2세 영아 자녀가 사회적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기관을 이용할 때 지원되는 지원금의 최소 30%에서 50% 수준에 해당되는 금액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며, 이 금액이 조부모 손자녀 양육수당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0세 손자녀의 경우 월 300,000원에서 500,000원, 1세 손자녀는 월 250,000원에서 350,000원, 2세 손자녀는 200,000원에서 250,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유아인 경우 대부분의 유아들이 사회적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양육수당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동의한다.

〈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제안)

	국공립기관이용 시 지원 금액	현행 양육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
0세	1,048,712원	200,000원	300,000-500,000원
1세	755,009원	150,000원	250,000-350,000원
2세	588,136원	100,000원	200,000-250,000원
3-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단설유치원: 785,423원 • 공립병설유치원: 616,070원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 3세: 389,128원 - 4-5세: 372,085원 	100,000원	100,000원

* 조부모돌봄수당(양육지원수당)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조부모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로는 영국의 친척 양육수당, 호주의 조부모 급여수당, 미국의 조손가구 지원인 후견인 보조금을 들 수 있다. 조부모 육아지원정책이 안착되면, 조부모 육아지원금을 조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안 3) 보조인력 지원

조부모 육아지원이 영아 양육 대안으로 활용된다면 이는 종일 보육 형태이다. 본 조사 결과에서 조부모들은 하루 평균 6.69시간 손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특히 손자녀가 영아인 경우에는 하루 평균 10.57시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아 양육의 특징은 모가 출근하기 전부터 손자녀를 돌보기 시작하여 손자녀의 모가 퇴근할 때까지 꼬박 영아를 돌보는 형태이다. 그러나 조부모들은 혼자서 하루 10시간 이상 영아를 돌본다는 것이 체력에 무리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손자녀를 돌보는 일은 씻기고 옷 입히는 일, 대소변 처리, 낮잠 재우기, 식사와 간식 준비하고 먹이고 치우는 일, 때로는 집안 청소 등 집안일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보조교사, 아이돌보미 등의 보조 인력을 파견하여 하루 중 일정 시간 조부모들이 쉴 수 있는 틈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권역별로, 주 1-2회 정도, 하루 일정 시간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4) 육아활동 지원

조부모들의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아들의 발달 및 성장 특징, 영아 양육 방법,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노인시기의 자기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세 살 마을’ 등의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을 참고할 수 있다.

조부모 육아지원 공간의 확보 및 지원 요구는 현재 지역사회 내의 육아 지원종합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육아를 지원하는 조부모들

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손자녀 육아하기, 육아 관련 정보 교환, 육아관련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가칭) 조부모 아기놀이터, 조부모 육아 나눔터 등이다.

제안 5) 조부모 육아 모니터링, 관리지원

조부모들에게 정부 예산 지원이 시작되면 제도가 효율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부모 육아에 대한 관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부모 육아와 관련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역별로 육아지원 인력을 양성, 지원할 수 있으며, 조부모 육아교육 시행, 조부모 육아지원 수당 지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무들은 현재 영유아 양육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전체 육아지원정책 범위 안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시범운영 등으로 세부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6) 조손가구 종합지원

조부모가 손자녀 육아를 지원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손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낮 시간 동안 부모가 취업 등으로 육아가 어려운 경우 조부모가 이를 지원해 주는 경우이다.

다른 한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손자녀에게 부모가 부재하여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손가구의 경우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에 의할 때 조손가구는 대체적으로 빈곤가정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의 조부모 역시 저소득층이 많아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특히 빈곤층 조손가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생계비 지원, 조부모 일자리 지원, 손자녀 양육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일정 연령의 자녀가 부모가 없는 경우 부모수당 지급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기대효과

본 연구는 향후 조부모 손자녀육아를 정책으로 도입하고자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 국내문헌

- 백선정·고지영·양정선·백현식(2011). 『맞벌이 가정 내 조부모의 양육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영아가정을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2014.12월말 기준)』.
- 서문희·이옥·백화중·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 여성부.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 서문희·이혜민(2013). 『호주의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 세 살 마을 연구소(2015a). 『‘세 살 마을’ 2015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 ‘행복한 조부모되기’』 교재. 세 살 마을 연구소.

- _____ (2015b). 세 살 마을 연구소 내부자료.
- 오은진·정가원·박수범·이슬(2014). 『보건복지분야 시간선택제 적합업종 실태조사 및 운영전략 수립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유희정(2015).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 자녀양육지원정책」. 2015년 KIPA 조사포럼 Vol.13.
- 유희정·마경희·김소영(2013).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른 재정운영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희정·홍승아·김지혜·이슬·동제연·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하정화·김현지·이옥경·허정윤(2013). 『부산지역 맞벌이가정의 조부모 손자녀 양육 실태 및 욕구 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 해외문헌

- ACF(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Region IV(2007).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 Call To Action』. ACF Region IV.
- Albertini, M., Kohli, M. and Vogel, C.(2007).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Time and Money in European Families: Common Patterns-Different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17). p319-334.
- Anne Gray(2005). 『The Changing Availability of Grandparents as Carers and its Implications for Childcare Policy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34) p557-577.
- Attias-Donfut, C., Ogg, J and Wolff, F.(2005). 『European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Financial and Time Transfers』. European Journal of Ageing(2). p161-173.
- Department of Health(2009). 『Grandparenting for Health』. In: DEPARTMENT OF HEALTH(ed). Annual Report of the Chief Medical Officer. London: Department of Health.
- Goodfellow, J. and Lavery, J.(2003). 『Grandparents supporting Working

Families: Satisfaction and Choice in the Provision of Childcare』.
Family Matters(66). p14-19.

Hank, K & Buber, I(2009). 『Grandparent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Findings from the 2004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Journal of Family Issues(30) p53-73.

Karen Glaser, Debora Price, Giorgio Di Gessa, Eloi Ribe, Rachel Stuchbury and Anthea Tinker(2013). 『Grandparenting in Europe: family policy and grandparents' role in providing childcare』. London: Grandparents Plus.

Murphy, M.(2011). 『Long-term Effects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of Family and Kinship Network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37). p55-80.

Nandy, S., Selwyn, J., Farmer, E. and Vaisey, P.(2011). 『Spotlight on Kinship Care: Using Census microdata to Examine the Extent and nature of Kinship Care in the U.K.』. London: University of Bristol.

Post, W., Van Poppel, F., Van Imhoff, E. and Kruse, E.(1997). 『Reconstructing the Extended Kin-Network in the Netherlands with Genealogical Data: Methods, Problems and Results』. Population Studies-A Journal of Demography(51). p263-278.

Rutter, J. and Evans, B(2011a). 『Informal Childcare: Choice or Chance?』. London: Day Care Trust.

_____ (2011b). 『Listening to Grandparents』. London: Day Care Trust.

Share, Michelle and Kerrins, Liz(2009). 『The Role of Grandparents in Childcare in Ireland: Towards a Research Agenda』. Irish Journal of Applied Social Studies. Vol 9(1). p33-47.

United States Census Bureau(2006). 『2005 American Community Survey: Tables S1001 and S1002』. Washington D.C.: U.S. Census Bureau.

Urban Institute(2003).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Children in Kinship Care』. Available at: www.urban.org/url.cfm?ID=900661.

3) 홈페이지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gngfamily.com)

강남구청 손주돌보미 사업 안내

(<http://www.gangnam.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21>)

서초구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사업 홈페이지

(<http://www.seocho.go.kr/site/bc/index.jsp>)

세 살마을 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sesalmaul.com/>)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 2015년도 2월 유치원 정보공시 개요

(<http://e-childschoolinfo.moe.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http://www.kihf.or.kr/business/health_06_01.php)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td.kedi.re.kr/index>)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Grandparents Association(UK) 홈페이지

(<http://www.grandparents-association.org.uk/wb/welfare-benefits-and-local-authority-allowances-for-grandparents-and-other-extended-family-members-raising-children.html>)

Grandparents Plus 홈페이지

(<http://www.grandparentsplus.org.uk/grandparents-helping-childcare>)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각 중앙행정기관